

데스크시각



장필수 편집부국장·전남본부장

화합의 첫걸음은 개혁이다

실행해 목표를 이루겠다는 타임테이블이 없다. 표만 얻는 데 올인하고 있어 정작 지역발전을 위한 준비는 얼마나 했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초선 단체장들의 각오

그나마 이들이 내놓은 정책엔 선심성 사업이 많다.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공약한 것이겠지만, 당선 후에도 재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농민수당이다. 민선 7기 들어 모든 농민들에게 10만~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A군 단체장은 취임하자마자 농업경영안정자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임 군수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300명 이상 경작하는 농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왔는데 이것이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A군은 군 예산으로만 지난해 30억 원을 경영안정자금으로 편성했는데 올해는 선거를 앞두고 50억 원으로 늘려 농민 1인당 70만 원을 지

급했다. A군수는 “이 돈을 지역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써야 하는데 주던 것을 줄이면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털어놓는다.

그저 현상 유지만 해도 좋다는 단체장도 눈에 띈다. B군 단체장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큰 이슈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임 단체장들이 그린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소소한 생활 정치도 중요하지만 시작부터 비전 없이도 현상 유지나 하겠다는 것은 표만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다.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든 듯한 단체장도 있다. C군 단체장은 공무원들에게 자신을 선출해나 친구로 대해 달라며 친밀도를 높이고 있다. 회의 때는 자신도 직원의 한 사람으로 의견을 낼 뿐 자기의

견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격의 없는 대화를 이끌어 내 좋은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지만 자칫 공무원들에게 휘둘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D군 단체장의 소신 행정은 단연 눈길을 끈다. 이 단체장은 당선되자마자 실행 계획과 타임테이블까지 담은 꼼꼼한 정책을 내놓았다. 인수

위를 가능한 뒤로는 전임 단체장의 적폐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해 군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적폐 청산을 통해 다시는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취임식 때 화합만 강조하는 여느 단체장들과 달리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는 길이 개혁에 있다’고 일갈했다. 과거의 잘못이 있다면 고치고 바뀌서 미래로 가야 한다며 개혁이 진정한 화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공무원들에게는 ‘더 이상 정치 공무원의 오명을 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공직자가 혁신의 주체가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임기 시작부터 눈치 보나

초선 단체장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행보다. 표를 의식해 공무원들 눈치 보고 선심성 공약을 쏟아 내는 단체장과 비교돼 신선함마저 안겨 준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되어 가는 지금, 소신 행정을 펴는 단체장을 더 많이 보고 싶다. 그런 소신 행정으로 재선·3선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토가 될 날을 고대한다.

은펜칼럼



이병우 단국대 외래교수

‘음천 면장 맥주 따르기’와 스토리텔링

거품이 한가득해서 한 병으로 여덟 잔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에 거품이 더 많게 따르는 것을 빗대어 ‘음천 면장 맥주 따르듯’한다는 말이 사용됐다. 맥주 한 병으로 대접할러니 거품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과 맥주 따르는 방법이 서툴러서 그랬다는 설이 있다. 어쨌든 ‘우체국장 술잔’처럼 어렵던 시절의 이야기다.

몇 년 전에 이 이야기를 컬럼으로 쓰고 싶어서 직접 음천 면장께 전화를 한 적이 있다. 재미있게 잘 이용하면 음천면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했더니, 면장께서는 강진군에서도 스토리텔링으로 이용하자고 하는데 면 주민들이 싫어한다고 하면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 좋은 스토리텔링의 소재인데 참 안타까웠다.

그런데 ‘음천 면장 맥주 따르기’ 보다 더 심하게 거품을 내는 맥주 따르기가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맥주의 본고장인 체코의 필스너 우르켈 맥주 따르는 방법이다. 대표적

인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제일 뒷부분 맥주 거품이 있게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둘째는 슈니트(Snytr)로 불리는데 거품이 5분의 3 정도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음천 면장 맥주 따르기와 가장 유사하다. 셋째는 거의 거품으로 잔을 채우는 것을 밀리코(Mliko)로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 필스너 우르켈의 풍부하고 달콤한 거품 맛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현재 마시고 있는 맥주의 80% 이상은 하연 발효 방식의 라거 맥주인데 이 맥주가 처음 만들어진 곳이 체코 플젠(Plzen, 독일어 Pilsen) 지역이다. 1842년 플젠의 양조장에서 물과 보리, 홉을 사용해 낮은 온도에서 발효되는 맥주를 생산했는데 이것이 바로 최초의 라거 맥주인 필스너 맥주이다. 엄청난 인기를 끈 필스너 맥주가 일반화되자 플젠 양조회사는 영어 오리지널의 뜻인 우르켈을 사용해서 ‘필스너 우르켈’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말하자면 필스너 우르켈은 원조(오리지

널) 필스너 맥주라는 뜻이다.

결론은 거품이 많이 나게 따르는 방법이 맥주의 본고장에 있다는 것이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거품이 5분의 3 정도 따르는 방법인 슈니트(Snytr)는 처음엔 맥주량이 많아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이제 맥주 따르는 세 가지 방법으로 채택되어 관광객에게 선보이고 있는데 아주 인기라고 한다.

‘음천 면장 맥주 따르기’도 이와 같이 스토리텔링으로 적극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여기에 전국 유일하게 ‘음(庵)’자를 사용하는 지명과 함께 풀어낸다면 대단한 이야기 거리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음’은 여러 종교의 진인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으로 여겨지는 신성한 음절로 여겨져 불교 의례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나타내는 주문이라는 육자진언 ‘음마니반메훤’의 첫 글자 ‘음’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보니 음천면이 스토리텔링의 소재를 참 많이 가지고 있다.

기고



박영길 국립지연휴양림관리소 사업지원팀장

숲, 과학과 문화의 공존

받이 행사이다. 이렇게 성공한 정이품송의 200여 후계목들이 성공해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데 정이품송의 장자(長子)목은 서울의 남산 자락에 심어져 ‘남산위의 저 소나무’처럼 애국가의 상징이 되고 있다. 물론 DNA 검사 결과에서도 정이품송의 혈통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이품송은 충북 보은군 서원리에 있는 서원리 소나무(천연기념물 352호, 수령 600년 추정)와 사실상 관계에 있었다. 서원리 소나무는 서방인 정이품송이 삼척의 미인송과 법률혼을 치르기 전부터 정이품 소나무와 혼인을 했다 하여 ‘정부인 소나무’란 별명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정이품송과 삼척의 준경묘 소나무가 혼례를 한다고 하니 서원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정부인 소나무를 두고 다른 소나무와 혼례를 하여 자식까지 두게 되었으니 이게 될 말인가?” 그래서 1년 뒤인 2002년 정부인 소나무와 뒤늦은 혼례식과 함께 합방례가 치러졌다. 정이품송은 얼떨결에 두 부인을 거느리게 됐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피곤했을 것이다. 실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나무에 대한 독특한 사랑이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소나무도 인간사와 똑같이 취급하는 문화 의식이 있다. 아무리 어렵고 궁핍해도 신성시하는 마을 앞의 당산나무는 절대 손대지 않고 보호하려는 마음도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다.

북한 황해도와 남한 불음도에 이산(離散) 은행나무가 있다. 나이는 약 800년 이상 되었고 고려 시대부터 황해도 연안 지역에서 같이 살다가 홍수로 떠 내려와 불음도에 정착한 남편 은행나무(남한 천연기념물 304호)가 북쪽에 남아 있는 부인 은행나무(북한 천연기념물 164호)를 그리워 하며 자주 수세가 약해진다고 한다. 북쪽의 남아 있는 부인 은행나무도 자주 쇠약해져 북한 사람들이 외롭지 말라고 주변에 새롭게 은행나무를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재혼을 시킨 셈이다. 그런데도 열매가 잘 맺히지 않고 수세가 약해지는 데 북한 사람들도 남쪽에 있는 남편 은행나무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수세가 약해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실로 남북한 모두 나무에 대한 마음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면 이산 은행나무들의 합공례라도 해서 만나게 해야 맘이 편해질 것 같다. 과학적으로 보면 바닷가이다 보니 은행나무 주변에 염

해 피해도 발생할 것이고 나무가 노쇠하니 수세가 약해지고 열매도 잘 맺히지 않았지만 남북한의 사람들은 나무가 서로 헤어져 있다 보니 그리움에 지쳐 수세가 약해진다고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노쇠한 은행나무나 보호수 등을 외과수술이나 적극적인 병해충 방제로 보호해 나가는 것은 과학의 힘이지만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나무와 숲에 대한 사랑의 정신도 문화의 힘으로 중요하다.

최근 북한의 산림 복구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햇빛은 산림 복구는 사망 사업과 적지적수(適地適樹)의 나무심기, 숲 가꾸기, 병해충 방제 등 우리가 이루었던 과학적인 방법의 치산녹화(治山綠化) 성공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나무와 숲의 사랑 정신을 먼저 일깨워 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민족의 동질성을 찾아가면서 내재되어 있는 나무와 숲 사랑의 정신을 복돋우어 치산녹화의 강한 의지를 갖추게 된다면 북한의 산림 복구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과학과 문화 공존의 힘이다.

社說

총탄으로 촛불 끄려 한 계엄 음모 섬뜩하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 선포 시 미국 정부로부터 계엄 인정을 받도록 외교적 조처를 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방부가 기무사 작성 계엄 검토 문건(지난해 3월 작성)에 딸린 군사 2급비밀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평문으로 분류해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문건을 보면 국방부 장관은 주한 미국·중국대사를 초청해 계엄 시행에 대한 양국의 이해를 구하도록 했다. 1980년 5·17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으려 했던 사례를 연상케 한다. 계엄 선포 후 보도 검열단 편성 계획도 담겨 있다.

기무사는 국회가 계엄법에 따라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으로 국회의장 권한까지 손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세균 전 의장을 따로 설득하거나 최악에는 다른 야당 의원들과 함께 사법처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건을 종합하면 계엄사령부가 국가정보원을 통제하고, 국회와 언론사를 장악

하며, 광화문·여의도에 장갑차를 진주시키는 등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 포함돼 있어 군의 계엄 선포 준비가 실행 직전 단계까지 진행됐음을 보여 준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문이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7년 3월 상황에 맞춰 작성돼 ‘총탄으로 촛불을 끄려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섬뜩하게 한다.

이번에 공개된 세부 계획 문건은 여러 모로 ‘12·12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유린한 전두환 정권의 계획과 흡사하다. 완전히 시대를 역행해 80년대 암흑기로 되돌아가려는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국방부와 법무부는 군·검·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기무사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거쳐 계엄령 선포 권한이 있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까지 보고가 됐는지, 엄정한 수사로 모든 관련자를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문건이 발견된 이후 நட장 보고와 은폐 시도 여부에 대한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

활력 잃고 침체...광주 경제 되살릴 해법 없나

광주 지역의 수출 및 생산 실적은 물론 소비마저 갈수록 줄어들고 고용률까지 덩달아 하락하며 지역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요 경제 지표가 동반 하락하는 심상치 않은 상황에 자칫 저(低)성장의 늪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 지역 수출은 71억7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감소했다. 특히 주력 업종인 자동차·타이어·냉장고 수출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수출 부진으로 생산도 내리막길이다. 기아차 광주 공장의 올 상반기 생산량은 22만6654대로 지난해 상반기(25만3440대)보다 10.6%나 줄었다. 금호타이어도 지난해 상반기 2265만 개에서 올해는 2230만 개로 감소했다. 호남지방통

계청이 파악한 지난 5월 소비도 전년 동월 대비 2.1% 하락했다.

광주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력 업종의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고 고용마저 감소하는 것은 성장 동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더한다. 여기에 지역업자들도 장기화된 불경기로 기폭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식자재 가격 상승과 최저 임금 인상, 대출 금리 인상이 겹쳐 삼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다행히 수출 부진의 원인이 되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한국을 비켜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카드수수료 인하를 비롯해 ‘광주형 일자리’의 조기 추진을 통한 고용 안정이 시급하다. 광주시도 비상경제대책반을 편성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수렴하고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81년 이후 36년 만에 ‘계엄(戒嚴) 악령’이 되살아났다. 111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 속이지만 ‘계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계엄령을 경험했던 기성세대들은 더욱 그랬을 것이다.

광주와 전남은 계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1980년 5월 ‘계엄 해제’ ‘휴교령 철폐’를 외쳤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다치고 혹은 감옥에 끌려간 아픈 역사가 아직도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이다. 1948년 10월 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지역(여수·순천) 계엄 선포가 있었다. 이 데올로기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1만여 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순 사건의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계엄은 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그 지역 내의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모두 군의 권력으로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선포된 대부분의 계엄은 독재 정권 유지 목적으로 악용됐다. 1948년 10월21일 여

수와 순천 일원에 내려진 계엄 이후 같은 해 11월 17일에는 제주도 일원에 계엄령이 내려졌다. 이는 무고한 시민들이 수없이 죽어 간 제주 4·3사건의 아픈 역사를 남겼다. 그 뒤 6·25 전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한일회담 반대 시위, 10월 유신, 부마항쟁, 10·26사태 등 역사의 변곡점에는 늘 있었던 계엄령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이후 계엄령 선포를 기획했다는 기무사 문건이 최근 공개되면서 ‘계엄 망령’이 되살아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댓글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기무사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 등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계엄령까지 기획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앞으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특히 문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앞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만들어진 군 조직이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권일·정치부 부장 cki@

계엄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220-0541
220-0632	220-0652	(FAX 222-0195)	220-0551
220-0663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4	220-0693	예향부	220-0195
220-0642	220-0697	사진부	220-0693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